금남로를 달린다 새 봄을 깨운다

50년 전통의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오는 3월1일 열린다. 광주의 상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해 도심을 가로지르고 영산강변을 따라 질주하는 42.195㎞의 레이스가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에서 마라톤 마니아들이 서창들녘 앞 강변을 달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50년 전통의 호남대표 마라톤 대회
풀·하프코스 아시아문화전당 출발
영산강 따라 승촌보 반환 '명품코스'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의 질주가 2015년 새 봄을 깨운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의 50번째 총성이 오는 3월1일 오전 8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울린다.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이번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두 부문으로 나눠 치러지면서, 마라톤 마니아들의 수준 높은 질주가 펼쳐질 전망이다.

도심을 달리는 명품 풀코스는 새 봄을 기다리는 전국 마라토너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 오전 8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스타트를 끊는 3·1 마라톤의 풀코스는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의 전경을 따라 승촌보로 이어진다. 승촌보를 돈 참가자들은 상무시민공원에서 42.195㎞의 질주를 끝내게 된다.

오전 8시35분에는 하프코스 참가자들이 도심을 마라톤 열기로 달구게 된다. 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선으로 한 하프코스는 영산강으로 진입해 서창교를 돈 뒤 상무시민 공원으로 골인하는 코스로 이뤄졌다.

1954년 옛 전남도청(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처음 시작된 3·1 마라톤은 잠시 대회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올해로 50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호남을 대표하는 마라톤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참가비는 풀코스·하프코스 모두 2만5000원이며, 참가자는 기록 측정용 칩을 통해 자신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은 대회가 종료된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대회 홈페이지에도 공지된다.

개인상은 1위부터 45위까지 시상되며 현장에서는 1~3위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풀코스 남·여 우승자에게는 상장·트로피와 함께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면 2위 40만원, 3위 30만원, 4·5위 2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마련됐다.

하프코스 우승자는 상장·트로피와 3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며, 2·3위 에게는 20만원, 4·5위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결승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에게는 완주메달과 간식 및 음료 등이 제공된다.

대한체육회(대한육상경기연맹,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대한근대5종연맹 등)에 등록된 사람은 시상에서 제외된다.

20인 이상 참가 단체를 대상으로 한 단체상 시상도 이뤄진다. 참가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시상하며 풀코스 2점, 하프코스 1점 등 배점을 합산해 순위를 정하게 된다.

1위 팀에게는 6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2위 50만원, 3위 40만원, 4위 30만원, 5위 20만원, 6~15위 10만원의 상금이 준비됐다.

원앙부부상, 포토제닉상 등의 특별상도 마련됐다. 3·1 마라톤의 50번째 질주를 기념해 전체 참가자 중 사전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 행운상을 수여한다.

원거리 참가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셔틀버스(1인당 2만원)도 운행된다.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을 제외한 20인 이상 참가지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체 참가팀을 위해서는 참가자 및 동반가족이 참가할 수 있는 텐트가 설치된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념하며 펼쳐질 새 봄의 질주. 3월1일 광주·전남의 도심은 마라토너들의 건강의 장이자 뜨거운 우정을 나누는 무대로 변신한다. 50년이라는 역사를 품고 있는 만큼 더욱 의미 있는 2015년 봄날의 질주가 전국 마라토너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3·1절 전국 마라톤 홈페이지(http : //mara.kjmedia.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으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공동 주최하며 광주육상경기연맹·전남육상경기연맹이 공동 주관한다. 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이 후원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